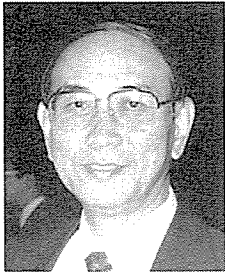


원시와 노안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시력 좋아도 원시안경 써야

■ 원시 : 눈의 굴절상태는 나이와 더불어 변하고 있다. 갓난 아기의 눈은 대체로 원시이지만 유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차차 근시가 증가해서 20세쯤 되면 굴절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동의 통계를 보더라도 1학년에는 원시가 근시보다 많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차 원시는 줄어들고 대신 근시는 증가한다. 원시란 아무 조절을 안하는 상태, 즉 먼 곳을 보고 있을 때 눈 앞에서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눈의 망막 뒷쪽에 초점을 맺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이름 그대로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안보이는 눈을 말한다. 그러나 중등도 이하의 가

벼운 원시에서는 눈이 조절을 해서 이러한 굴절이상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잘 보이고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되면 먼 곳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이 과도하게 되므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사팔눈이 되기도 하며 안정피로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책을 보면 눈물이 핑 돌고 앞머리와 눈이 아프고 쉬 피로하며 심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기도 한다. 흔히 우리는 안경이란 시력이 나쁠 때만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먼 곳이나 가까운 물체가 안보일 때만 비로소 안경을 찾게 된다. 그러나 원시를 눈 자체가 교정하느라고 과도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가져온다. 이럴 때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력이 1.5 이상일지라도 원시안경 즉 볼록렌즈를 끼워줘야 한다. 이와 같이 시력이 좋아도 꼭 안경을 써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력만 재서 좋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특히 어린이는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5세 넘으면 수정체 조절력 잃어

■ 노안 : 우리 눈은 잘 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 물체에 초점이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리가 다른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작용을 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부른다. 눈의 조절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부풀었다 납작해졌다 해서 조절하고 있다. 가까운 곳을 볼수록 많이 부풀어져야 된다. 그러나 이 자동핀트 조정장치가 나이가 들면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 보통 45세 전후가 되면 책이나 신문을 볼 때 아물거리고 잘 안보인다. 이것이 즉 노안의 증세이며 이제는 늙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기분 나쁜 현상이다. 이렇게 눈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가까운 것이 잘 안보이는 것은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져서 탄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부풀어서 가까운 곳을 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볼록렌즈의 돋보기 안경을 써야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 같은 볼록렌즈를 쓰기 때문에 원시와 혼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시와 노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종의 노화현상이지만 원시는 어느 연령에나 올 수 있는 먼 곳의 것은 잘 보이나 가까운 곳이 잘 안보이는 굴절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⑤7